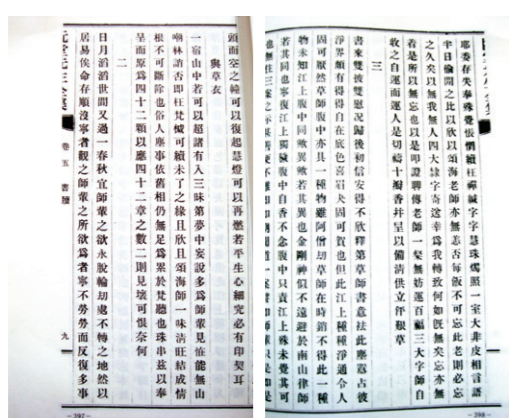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언어를 초월한 해학

추사가 초의스님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두 사람의 교유관계는 물론 당시 세상이나 한 논자의 드러나는 묘한 매력에 있다. 때로 추사의 편지글에는 불교의 출세관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추사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위명존순(侯命存順: 천명애(天生愛), 이런 연유로 윤희를 반복하는 스님들의 차사를 곱게 보지 않은 듯하다. <완당전집>에 수록된 <여초의(吳草衣) 두 번째 편지에는 이러한 건구이 또 렷이 드러난다.



<완당전집>에 수록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

‘運百福’ 큰 글씨… 초 의복 축원 판향 동봉 부처님께 청공 올려

하는 것이나 老師에게 전해 한 바탕 웃음거리로 삼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運百福’라고 쓴 큰 글자는 스님이 거주하여 스님에도 모든 복이 들어오시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들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열 조각의 판향을 함께 보내 청공으로 올립니다. 하 일월을 세월 놓고 근근이 적습니다. (日月滔滔 世間又過一春秋 宜師戴之欲永脫輪軸不轉之地 然以 易易侯命存順役事者觀之 師戴之所欲爲者 寧不勞焉而反復多事耶 委存奉殊殊復賴 繼任釋字字 惠殊燭一室 大非皮相言語 半日偷閒之比 以欣 以頌 海老師亦無恙否 每飯不可忘 此老則必忘之久矣 以無我無人四大字寄達 幸爲我轉致何如 既無無忘亦無恙 是所以無忘也以是叩謝 聊傳老師 一紙無妨 運百福三大字 師自收之自運而運人 是

切禱 十疊香并呈以備清供 立伴(釋草衣) 이 편지가 초의에게 보내진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해 스님(해봉스님)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26년 이전의 편지로 추정된다. 해봉스님에게 대한 추사의 특별한 정회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거나 밤을 먹음 때문에 노스님 을 잊지 못한다는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또한 초 의스님이 보낸 편지가 ‘글자 글자마다 지혜의 구슬이 온방을 밝게 비추 피상적인 말로 만나질 한 가로움을 빼앗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 추사의 고백은 초의의 식견을 높이 평가한 것일 터. 이러한 서로간의 존경심은 이어 되는 좋은 빛 중에 가장 수승한 관계로, 후인의 귀감이 되기에 족하다.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글씨는 현재 ‘명선(冥禪)’, ‘동국선원(東國禪院)’, ‘일로왕실(- 廬香室)’, 등 여러 점이 전제하지만 이 편지에서 예 서로 쓴 ‘무아무인(無我無人)’과 ‘운백복(運百福)’을 이미 써서 보냈으며, 열 조각의 판향(檀香)도 아울러 보냈다는 것이 확인된다. 사된 기운을 돌리치고, 주변을 정화하는 향은 부처님께 올리는 청공(淸供) 중의 하나. 특히 무아무인(無我無人)이라고 쓴 글씨를 다시 돌려달라는 추사의 뜻이 공명하다. 더 나아가 ‘만약 없었더라면 있어버리는 것도 집착이 없는 것’이란 말이나 이는 무방(無放)으로 집착이 없음을 증명한다. 그의 해학은 언어를 초월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해봉스님께 일러 한 바탕 웃음거리로 삼으라는 그의 응답은 진정 추사다운 해학의 일면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시이사 차문화연구소장)



조계사 앞마당에서 각각 스님(왼쪽)과 대림 스님(가운데)이 황경환 회장(오른쪽)과 함께 걸으며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놓는다. 세 선우는 “불교는 현재 세계적으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때문에 부처님의 친절한 가르침인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기불교경전 번역 원력 세운 세 선우

각목·대림 스님 ‘발원’ 뒤 황경환 후 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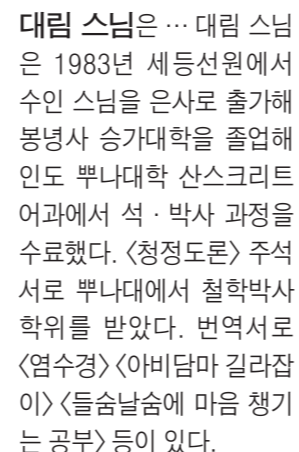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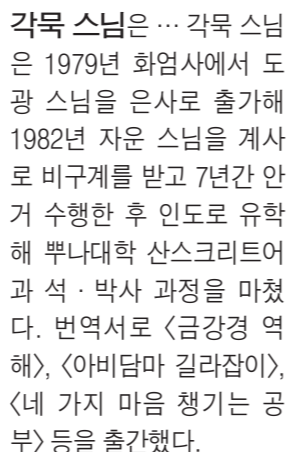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이 <맛지마 니까야>를 한글로 번역하며 4부 니까야를 완역했다. 대림 스님은 팔리어의 로마어 표기판을 바탕으로 5년 동안 번역에 매달렸다. 전체 3100개 이상의 방대한 주석도 달았다. 책을 낸 초기불전연구원은 원장인 대림 스님 과 함께 각목 스님이 2002년 만든 연구단체. 초기불전연구원은 총 50권에 달하는 팔리어 상장 전편을 한글로 완역한다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작발사 뒤에는 황경환 전강유조 선 회장인 후원자가 있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 또 황경환 회장을 11월 7일 조계사에서 만났다. 글=도원진 기자 nodu@tyunbul.com 사진=박재현 기자 wanhohko@tyunbul.com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통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66·전강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데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원심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봉사를 위한 봉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통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66·전강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데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원심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봉사를 위한 봉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통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66·전강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데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원심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봉사를 위한 봉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각목 스님은... 대림 스님은 1979년 화엄사에서 도 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자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7년간 간거 수행한 후 인도로 유학해 푸나대학 산스크리트어 과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번역서로 <금강경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등을 출간했다. 대림 스님은... 대림 스님은 1983년 세동선원에서 수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해 인도 푸나대학 산스크리트어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청정도론> 주석서로 푸나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번역서로 <영수경> <아비담마 길라잡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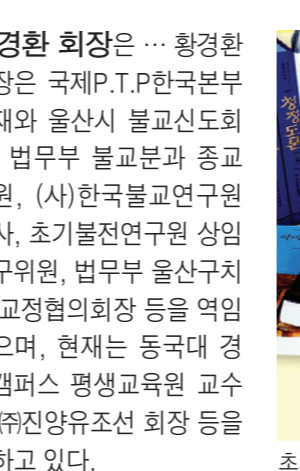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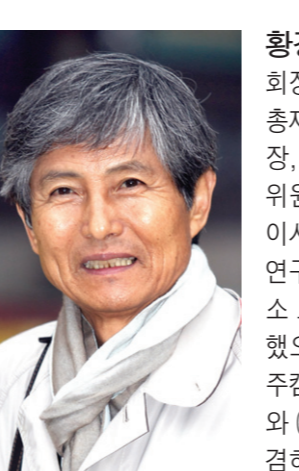


“인도에서 광바루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출가해 세 속에서 공부한다는 일이 마음에 걸렸습다. 각목 스님의 추천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식이죠.” 대림 스님은 한달 동안 절만 하며 전역아부를 갖고 “마음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못하면 다른 곳에 가고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아반(俄佛)’을 버려야 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스님은 푸나데에서 1년 간 산스크리트 문법 공부에 치중했다. 대림 스님은 “수행과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출가는 마음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 순간 번뇌가 일어날 때 상황에 맞는 대처를 초기불교에서는 상세히 알려줍니다. 초기경전에서의 부처님 말씀은 불자들이 이르는 친절한 선생님이니다.” 대림 스님은 공부하면서 건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미얀마에서는 아침에 걸러 죽을 직전까지 갔다. “내 살을 미얀마에서 정리하는 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기적같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 “그 때 이후의 삶은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더욱 역경을 매진하겠다는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림 스님은 귀국 직후 각목 스님과 함께 초기불전 연구원을 설립해 팔리어 상장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10년 동안 진행했다.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통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66·전강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데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원심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봉사를 위한 봉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통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66·전강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데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원심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봉사를 위한 봉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전통교적인 차원에서 진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 차원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지금 두 스님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한파가 몰아친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만난 황경환 회장(66·전강유조선 회장, BBS울산방송 사장)은 두 스님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말문을 열었다. 황경환 회장은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후원자다. 각목 스님과 대림 스님은 1980-90년대 인도 푸나데 학교에서 초기불교경전을 공부하며 만났다. 초기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원력을 세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원심은 냉혹했다. 한국불교에선 건물봉사를 위한 봉사 후원은 넘쳐났지만 경전 번역에 대한 후원은 관심조차 없었다. 이 때 이들의 후원을 자청한 이가 황경환 회장이었다.



전법일기

“아들이 주지이니 예의 지켜야죠”

아버님, 법당에 가서 절하시다

전화벨이 울린다. 속가 아버님의 전화다. “아버씨요” “셋째가?” “예, 주경입니다.” “아-그대, 스님, 잘 지내시요. 여기 집이다. 아버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지요.” “속가의 부모님은 스님이 네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직도 말씀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며 편안하고 자연스럽지가 않다. 아들이 스님이 되고도 10여 년 정도 자주 보지 못할 때는 당신들 편한대로 말씀을 하겠지만, 주지를 알고서는 거처가 멀지만 가끔에 초파일을 비롯해 기도과 행사가 있을 때는 자주 절에 오시곤 한다. 처음에는 당신들 편한대로 편으로 말씀을 하겠지만 신도들이 스님께 예의를 갖추는 태도를 자주 접하면서 어느 순간 때때로 경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왔습니다. “아들 스님한테 꼭 존댓말을 해야 하나?” “하하, 법회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경어를 쓰시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대요, 알았어요.”



그림·박구연

“아들 스님한테 꼭 존댓말을 해야 하나?” “하하, 법회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경어를 쓰시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나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대요, 알았어요.” 어머니도 이런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화의 시초는 거의 편의로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경어로 마무리되곤 한다. 아버님은 자주 명상교실에 등산이나 관광으로 방문하시는 하셨지만, 아들이 출가할 때까지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대대로 자유로운 생각을 지니시고 호탕한 품성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아버님

당신의 이런 원칙은 아들이 출가하고 나서도 지켜졌고 스님이 된 아들도 당신의 뜻을 존중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오셨을 때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시니 절이었다. “아니 아버지, 어떤 일로 법당에서 절을 하셨습니까?” “하하, 아들이 주지스님인데 모시는 부처님한테 예의를 지켜야겠다 싶어서 절을 했지요.” 그렇게 아버님은 부처님께 처음으로 절을 올렸다. “당신 보기에 아들이 믿음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생각되니 그렇게 절을 드린 것이다. 이후로도 꼬박꼬박 행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편하게 법당 출입을 하시는 것으로 보였다. 일단 당신의 안고한 고집을 접았으니 더 깊고 귀한 불법의 원근이 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절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드물지 않게 오시는 편이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척의 사용으로 오지만 다시 올 때는 불자로서 태도와 예절을 잘 지키곤 한다. 주지가 그렇게 지내니 대중스님들의 가족과 친지들도 편하게 오고 간다. 다만 다른 스님들과 조금도 차별이 없이 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생을 하기도 하는데, 세상 무엇보다 깊은 인연인 가족에게 법을 전하고 포교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과 그 가족들, 혈연과 인연으로 맺은 다성의 소중한 사람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경 스님(서산부사주지)



주경 스님(서산부사주지)

Advertisement for 'Tanghwa Cheongdongbulsang Jeonmun' (Tanghwa Cheongdongbulsang Jeonmun). It features three images of Buddhist statues and a large calligraphic piece. Text includes '1,000불 3,000불 10,000불' and '4代傳統' (4代傳統). Contact information: 010-3219-7180 / 010-3743-5167.

Advertisement for 'Minsookjukyeom' (민속죽염). It features an image of a person in a field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Text includes '25년 전통' (25년 전통) and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Contact information: 016-823-0483 www.msjy.co.kr

Advertisement for 'Minsookjukyeom' (민속죽염). It features an image of the product packaging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Text includes '9년 구운' (9년 구운) and '2년 구운' (2년 구운). Contact information: 016-823-0483 www.msjy.co.kr

Advertisement for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It features a globe and text describing the selection of 108 Buddhist leaders. Text includes 'WORLD BUDDHISM LEADER' and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Contact information: 02-733-5665.5670

Advertisement for 'Bulgyo Seungdan Pomsu Eoksik Gonggo'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It features a logo and text describing the Buddhist ordination ceremony. Text includes 'Bulgyo Seungdan Pomsu Eoksik Gonggo' (불교 승단 품수 의식 공고) and '귀의 삼보하소고' (귀의 삼보하소고). Contact information: 02-733-5665.5670